

이현석 과도체제 거쳐, 오너2세 조기등판 불가피

(새 대표)

(김원우 이사)

나이스 최영 대표 전격사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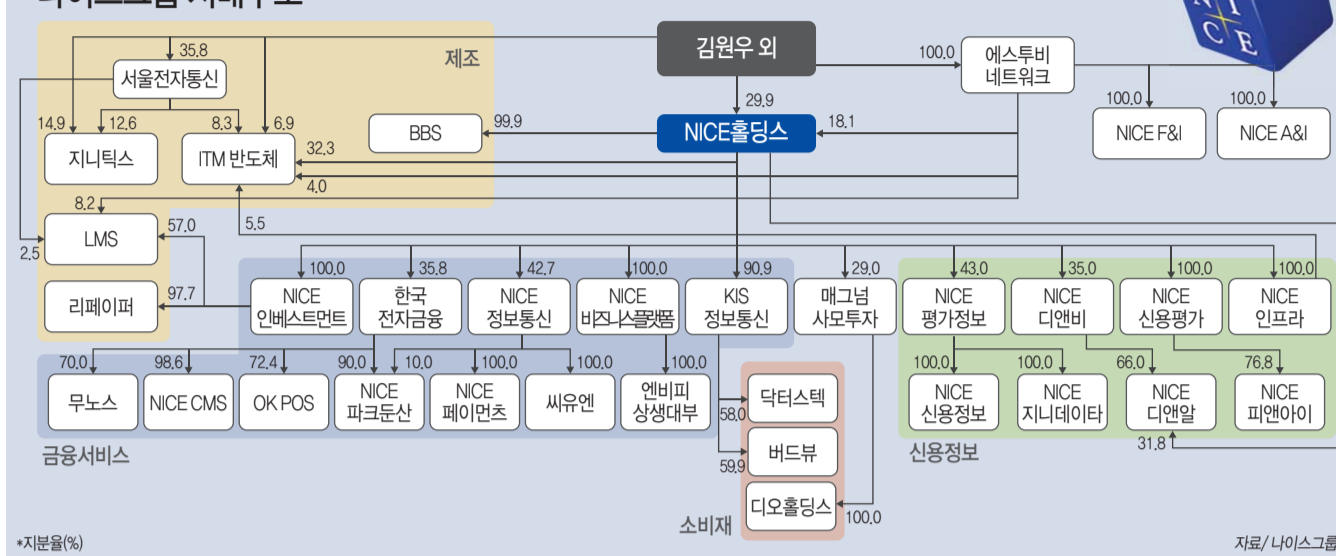
‘황제병사 논란’ 이현석 대표 선임 최정욱 여사 경영설 개연성 낮아

김원우 이사, 2018년부터 경영수업 지분 24.61% 상속받아 ‘최대주주’

나이스홀딩스 최영 대표이사(56)가 ‘황제 병사’ 논란으로 전격 사퇴하고, 이현석 경영기획본부장(50)이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되면서 향후 나이스그룹 경영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이스그룹은 나이스홀딩스(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신용정보, 금융서비스, 제조사, 신사업 등 4개 사업군 자회사가 41개에 달한다.

나이스홀딩스는 고 김광수 회장의 아들인 김원우 에스투비네트워크 이사(27)가 최대주주로 24.61%를 소유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딸(김수아)과 미망인(최정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48.51%에 달한다. 최영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0.54%다. 이밖에 한국밸류자산

나이스그룹 지배구조



운용(6.83%), 아프로파이낸셜대부(5.03%) 등이 5% 이상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현재 나이스홀딩스의 등기임원은 조대민 전략기획본부장(49), 윤희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5),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 부회장(65), 나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내과학교실 교수(55), 옹공구 법무법인 인월 대표 변호사(60), 전광

수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63) 등이다.

최영 전 부회장의 전격 사임으로 최대주주인 김원우 이사의 전면 등장이 빨라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오너 2세’의 조기등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현석 대표가 전면 등장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인사라는 분석

이다. 김원우 이사의 전면 등장에 앞서 이뤄진 일시적인 인사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2023년 3월까지가 임기였던 최영 전 부회장이 ‘황제 병사’ 논란에 휩싸여 전격 사퇴한 이후 나온 인사이기 때문이다.

고 김광수 회장의 아들인 김원우 이사는 지난 2018년부터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8년 3월 병환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고 김광수 회장으로부터 나이스 지분 24.61%를 상속받았다. 그는 고 김광수 회장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 자율경영, 공평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이 자율경영을 하고 있는 체제다.

일부에선 대신금융그룹 처럼 김광수 전 회장의 부인이 경영 전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최정욱 여사의 경우 평소 경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들이자 최대주주인 김원우 이사의 전면 등장이 빨라질 전망이다. 김 이사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고, 병역의무를 마쳤다.

한편 오너 2세인 김원우 이사의 전면 등장에 앞서 리더 그룹에 속하는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 부회장 등이 조직을 추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 부회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신용평가 사업을 주축으로 금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나이스금융그룹의 이미지와 신뢰도 추락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란 평가다.

/박승덕 기자 bluesky3@metroseoul.co.kr



정세균 총리, 3륜 전기차 타고 ‘부르릉~’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 내 e-모빌리티연구센터를 방문해 필리핀 수출용인 3륜형 전기차에 탑승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산업, 혁신변화로 핀테크 대응해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취임 1주년 ‘포스트코로나’ 여전업계 방향 제시 “지급결제 제도 정부와 협의할 것”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1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카드산업이 핀테크사보다 더 핀테크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카드업계가 보여준 혁신 DNA가 뿔어져 나와 카드사가 금융혁신에 있어 ‘퍼스트 무버’로 움직일 수 있게 경쟁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속 여전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협회의 지원을 약속했다.

카드산업이 기존 사업인 지급결제시장을 넘어 ‘혁신적 변화’를 통해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마이크로 사업의 구체화 과정에서 카드사의 데이터가 경쟁력 확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다”며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지급결제 관련 제도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캐피탈 분야에도 신(新)사업으로의 확장을 요구했다. 캐피탈업계의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 관련 부수 업무, 비대면 보험 상품 판매 등과 같은 신규 사업 발굴 지원을 약속했다.

또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구독경제·공유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캐피탈사의 사

례 연구 공유와 디지털 강화 및 데이터 활용방안, 해외진출 등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기술금융분야는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금융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보다 가벼운 민간자본이 벤처산업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 제한업종 완화, 융자한도 및 성과보수한도 폐지 등 규제완화를 위해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정기 세미나 개최 등을 개최하며 회원사 간 유대를 강화하며, 벤처 산업에서 신기술금융사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해 제도 개선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업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김 회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카드사는 지급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방역당국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영석 수습기자 ysl@

“다수 기업, 개성공단 재가동 소망”

>> 1면 ‘개성연락소 폭파...’서 계속

중기중앙회 남북경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회건 경기개성공단조합 이사장은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재 기업들의 최대 관건인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 정부나 국민들 모두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다시 찾아온 남북관계의 겨울이 빨리 지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이 2016년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으로 투자 손실 등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관계자는 “보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 정도 된다”며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남은 금액은 기업들이 손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본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11일에는 비대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해 정의를 세웠듯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법치가 인치를 이겨야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에 관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실종됐고, 인치의 결과만 남아 있는 만큼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영식 회장, 40여년 경험·네트워크 강점 등 인정받아

>> 1면 ‘빅4-중소법인간...’서 계속

특히 그는 “올해 빅4 신입회계사 채용은 750명 수준인 것으로 안다”면서 “신입 회계사의 25%가 빅4에 취업하지 못한다. 수요예측이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957년 인천 출신으로 인

천 제물포고, 고려대를 졸업했다.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대표직을 역임한 최근까지 약 40년을 회계업계에서 일했다. 또한 한국증권거래소 분쟁조정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올해부터는 한공회장이 비상근 자리가 됐지만 삼일회계법인 대표자리에서는 물러나기로 했다. 한공회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김 회장을 밝혔다.

신임회장·부회장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이일부터 시작된다. 선출직 부회장에는 나철호 한공회 감사, 감사에는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파트너가 1명씩 출마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이년부터 2년간이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